





RaonAtti
9th Siem Reap team 4월

CONTENTS

- 소개
- 4월의 활동
- 고민거리
- 5월의 계획
- 포토에세이



소개

Introduction

우리 소개



장은지
(TEARY)



막내 동생답게 애교가 많다능.
부럽다능..



뚝 부러지고, 의욕이 넘쳐 흐르고 있어.



그냥 제일 편해.
닭고 싶은 점이 많구나!



생각하는 것이나 믿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비판적인 사고를 잘하는구나!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크고
예쁜 것 같아.



김재민
(DARA)

**‘내가 바라본 너의 모습은 이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 모습으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미워하지 않는
다능. 부럽다능..



진경이는 공기 같은 아이구나!



성격이 무난해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자세를 지
닌 것 같다능.. 부럽다능..



다양하게 생각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



이상하지만 편해~



목진경
(REAK SMY)



백인준
(SSUNG HA)

사실 3월 달에 우리소개를 까먹음.. 뿌잉뿌잉!

Introduction

식구 소개



다일 공동체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번 달은 밥퍼 식구를 소개할게요!

Photo by



식구 소개

밥 퍼

노부야

매일 새벽마다 밥퍼 재료를
공수해옴
장난치는 걸 좋아함

문의경

센터 최고 인기남 고등학생
단기 자원봉사자.

른슬레이엄

밥퍼 주방장 Community
다일공동체의 대모
인심이 좋으심

분성

밥퍼에서 밥 짓기 담당
배식할 때 아이들 노래와
기도 담당

니응

밥퍼 마무리 청소
센터 내 공사 담당



Introduction

하루 일과

| 만도 | 김재민 | 목진경 | 백인준 | 장은지 | |
|---------------|------------------|---------------|--------------------------------|---------------------------|------------|
| 7:00 - 7:30 | 출근준비 & 아침식사 | 조도예배 | 출근준비 & 아침식사 | 조도예배 | |
| 7:30 - 8:00 | 출근(자전거) | 출근준비&아침식사 | 출근(자전거) | 출근준비&아침식사 | |
| 8:00 - 8:30 | | 센터로 이동 | | 센터로 이동 | |
| 8:30 - 9:00 | 아침 조회 | | | | |
| 9:00 - 9:30 | 쌀라아띠 수업준비 | 쌀라아띠 수업준비 | 밥퍼 & 빵퍼 도우미 | 피아노 레슨 | |
| 9:30 - 10:00 | | | | 미술수업 오전반 | 영어 1반 |
| 10:00 - 10:30 | 미술수업 오전반 | 영어 1반 | | 쌀라아띠 컴퓨터반 | 찌리웅 새로운 반 |
| 10:30 - 11:00 | | | | | |
| 11:00 - 11:30 | 밥퍼 & 빵퍼 도움 | 점심 식사 | | | 점심 식사 & 휴식 |
| 11:30 - 12:00 | 점심 식사 & 휴식 | | | 영어 3반 | |
| 12:00 - 12:30 | | 점심 식사 & 휴식 | 영어 3반 | 스텝 한국어 교육 (고급반-파리, 분탄) | 빵퍼 도움 |
| 12:30 - 13:00 | 쌀라아띠 수업준비 | | | | |
| 13:00 - 13:30 | 쌀라아띠 수업준비 | 스텝 한국어 (사롬) | 크메르어 수업 | 크메르어 수업 | |
| 13:30 - 14:00 | | | | | 미술수업 오후반 |
| 14:00 - 14:30 | 미술수업 오후반 | 크메르어수업 | 스텝 한국어 교육 (고급반-싸로앗, 분생, 펄라) | 스텝 한국어 | |
| 14:30 - 15:00 | | | | | 센터 방황 |
| 15:00 - 15:30 | 센터 방황 | 스텝 한국어(펠리&아론) | 만도 예배 | | |
| 15:30 - 16:00 | 센터 방황 or 만도예배 | 만도 예배 | | | |
| 16:00 ~ | 저녁식사 & 회의 & 자유시간 | | | | |

Introduction

월간 일정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1 첫번째 마을탐방 | 2 | 3 르슬레이미엄 가족과 프놈그라옴 나들이 | 4 | 5 | 6 암사라 전통 춤 공연 관람 |
| 7 | 8 | 9 크레트식 — 고주임, 파리 | 10 한국식 결혼식 → | 11 인준, 재민 바라미 — 새벽 톤레시업 호수 → | 12 | 13 진경, 은지 양근르 국립박물관 인준-홈스테이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시아누크빌 + 꼬공 여행 —————→ | | | | | | |
| 21 김영란 주임님 한국 가신 날 | 22 환경송 처음으로 한 날 | 23 | 24 진경 샬라아띠 첫수업 | 25 인준 샬라아띠 첫수업 두번째 마을탐방 | 26 | 27 인준 한글학교 야외수업 |
| 28 재민 생일 | 29 | 30 재민 샬라아띠 첫수업 | | | | |

고정 일과

밥퍼



청소
재료 다듬기
반찬 만들기
배식 설거지
봉사자 안내

* 밥퍼와 빵퍼는 시간 날 때 마다한다.

빵퍼



빵 만들기
포장
조리 후 설거지

크메르어 수업



월, 수, 금
2시-3시
리비다 선생님과
함께 수업

스텝 한국어



수준별 4개반
아띠1명당 1개
반씩 맡고 있음

한글학교



토요일 9시-12시
현지교민대상
사회, 국어수업
+ 방과후수업
(사물놀이반,
기타반)

4월의 활모

Activity of April

4월의 활동 첫번째. 쌀라아띠

Activity of April

살라아띠 미술반

재민(D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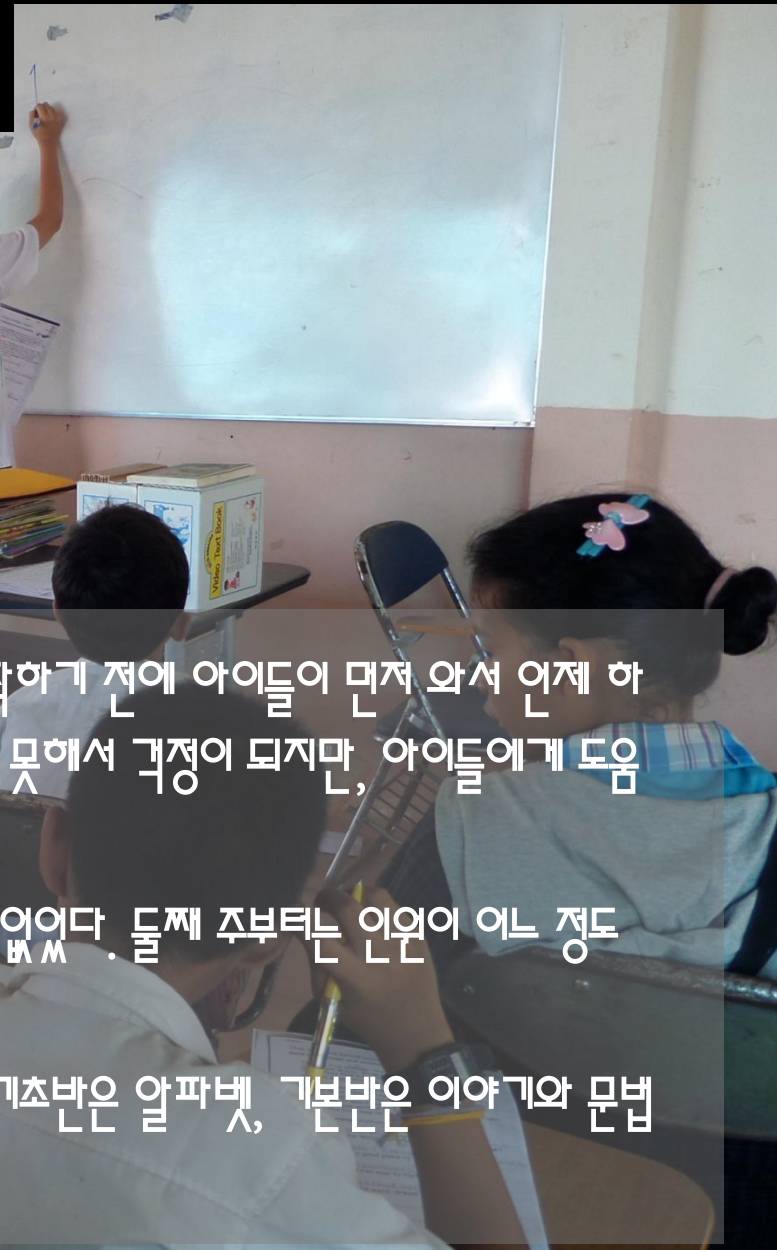


아이들과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말까지 안들어서
수업때마다 사실 좀 힘든 감이 있긴 하지만
도대체 이걸 뭘 그린거냐며 묻는 나의 질문에
베시시 웃으며 부끄러워하는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보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힘'을 안낼래야 안낼 수가 없다.

수업은 계획된 수업계획서에 따라, 공동으로 작업하는 공동체미술수업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대별로 2개의 반으로 분반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실 수업이라기 부끄러울 정도로 수업시간에 아띠교실은 난리도 아니다.

Activity of April

살라아띠 영어반 진경(REAKSMY)



기초부터 이어더 영어반을 이어서 하게 되었다. 살라아띠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와서 언제 하냐고 물을 만큼 아이들의 열기가 대단했다. 나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걱정이 되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어살라를 하고자 한다.

시작한 첫 주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고 가서 이연음 통제할 수 없었다. 둘째 주부터는 이연음이 어느 정도 잡히고, 아이들의 통학시간을 파악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였다.

현재 월, 수, 금 10:00, 11:00, 1:00 세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반은 알파벳, 기본반은 이야기와 문법을 배우고 있다.

Activity of April

살라아띠 컴퓨터반 인준(SSUNGHA)



기존에 KCOC단원이 하고있던 컴퓨터 반을 이어서 맡게 되었다.
졸츠남 이후 첫 수업을 했는데, **컴퓨터 교실 전선 문제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임시로 아디방에 컴퓨터 3대를 옮겨서, 한 컴퓨터에 전기공사를 불러 배우고 있다.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빠른 시일내에 전기공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한다. **한 달 간격으로 오전반이 오후반이** 그런데, 캄보디아의 학교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고,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사이의 시간인 12시부터 1시로 바뀌어서 **시간 선정에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사이의 시간인 12시부터 1시로 시간을 바꾸었다.
클래스는 PPT반(월, 목), 포토샵반(화, 금) 2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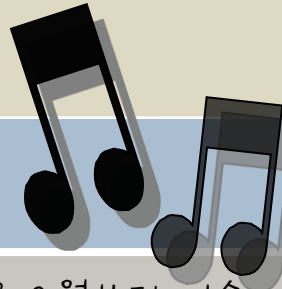
살라아띠 음악반

은지(TEARY)

중창단 (찌리응)



피아노교실



이번 달은 새로운 중창단을 모집하였다. **새로운 반**을 모집하고 수업을 아직 2번 밖에 하지 않아서 매일 올 수 있는 아이들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학교 정규 수업에 예체능이 없기 때문에 노래를 배우는 것에 대해 무척 흥미롭고 신기해 한다.

기존에 있는 반은 요들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찌리응을 해왔던 아이들이라 찌리응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학교 수업시간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 시간이 맞는 아이들, 배우고 싶은 아이들 위주로 유동성있게 수업 중이다.



피아노 교실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실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계속 피아노를 배워왔던 아이(스레이 누)가 있었는데 KCOC단원이 한국에 가게 되면서 배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스레이 누를 이어서 가르치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스레이 누를 가르치는 이유는 일요일마다 청소년 예배를 하는데 이곳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아이이기 때문이다.

Activity of April

4월의 활동 두번째. 환경관련활동

Activity of April

환경송



매일 밥퍼 배식 전에 아이들과 함께 환경송을 부르며 울동을 하고 있다. 환경송의 내용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귀신이 잡아간다는 내용이다. 아띠 기기부터 해온 캠페인송이다.



Activity of April

환경축제

저번 달부터 준비해오던 환경축제를 시작했다. 자신의 쓰레기는 자신이 책임지자는 책임의식을 알려주기 위해,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아이들에게 전달 하기위해 쓰레기를 입장료로, 페이스페인팅 및 환경관련 영상을 시청하려고 하였으나, 아이들이 거의 오지 않아 행사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일공동체의 거저축제(창고를 열어 물건을 나누어 주는행사)와 날짜,시간이 겹쳤던 점. 그리고 전단지 이외의 마땅한 홍보도구가 없었던 점이 아이들이 오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비록 1주차 환경축제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기대해본다.

이양 실패



Activity of April

4월의 활동 세번째. 행복했던 순간들

결혼식



다일공동체를 통해 만나, 무럭무럭 사랑을 키워 결혼에 성공한
고세인신랑과 파리신부! 지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총 이틀에 걸쳐
결혼식이 있었다. 하루는 캄보디아식으로, 하루는 한국식으로 진행된
결혼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진행되었다.

Activity of April

바라이 소풍

캄보디아의 휴일을 맞아 센터 스텝들과 아띠는 바라이로 소풍을 떠났다. 대부분의 스텝들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고기도 구워먹고, 수영도 하고 해먹에서 낮잠도 자고, 일에서 벗어나 하루 동안 잘 쉬고 즐겁게 잘~놀다 왔다.



* 바라이는 시엠립에 사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호수로,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제외하곤 우리나라 동해안 해변 풍경과 비슷하다.

Activity of April

쫄츠남(휴가)

쫄츠남은 한국의 설날과 같은 캄보디아 최대의 명절이다.

쫄츠남 휴가동안 우리 시범립팀은 풍요로운 자연과 사람들속에서 여유로운 행복을 만끽했다.

시아누크빌, 고평 여행(13.04.14~04.19) with 아띠, 개인봉사자 4명



고민거리

The source of Trouble

여기엔 다칠과 라온아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숨겨져있지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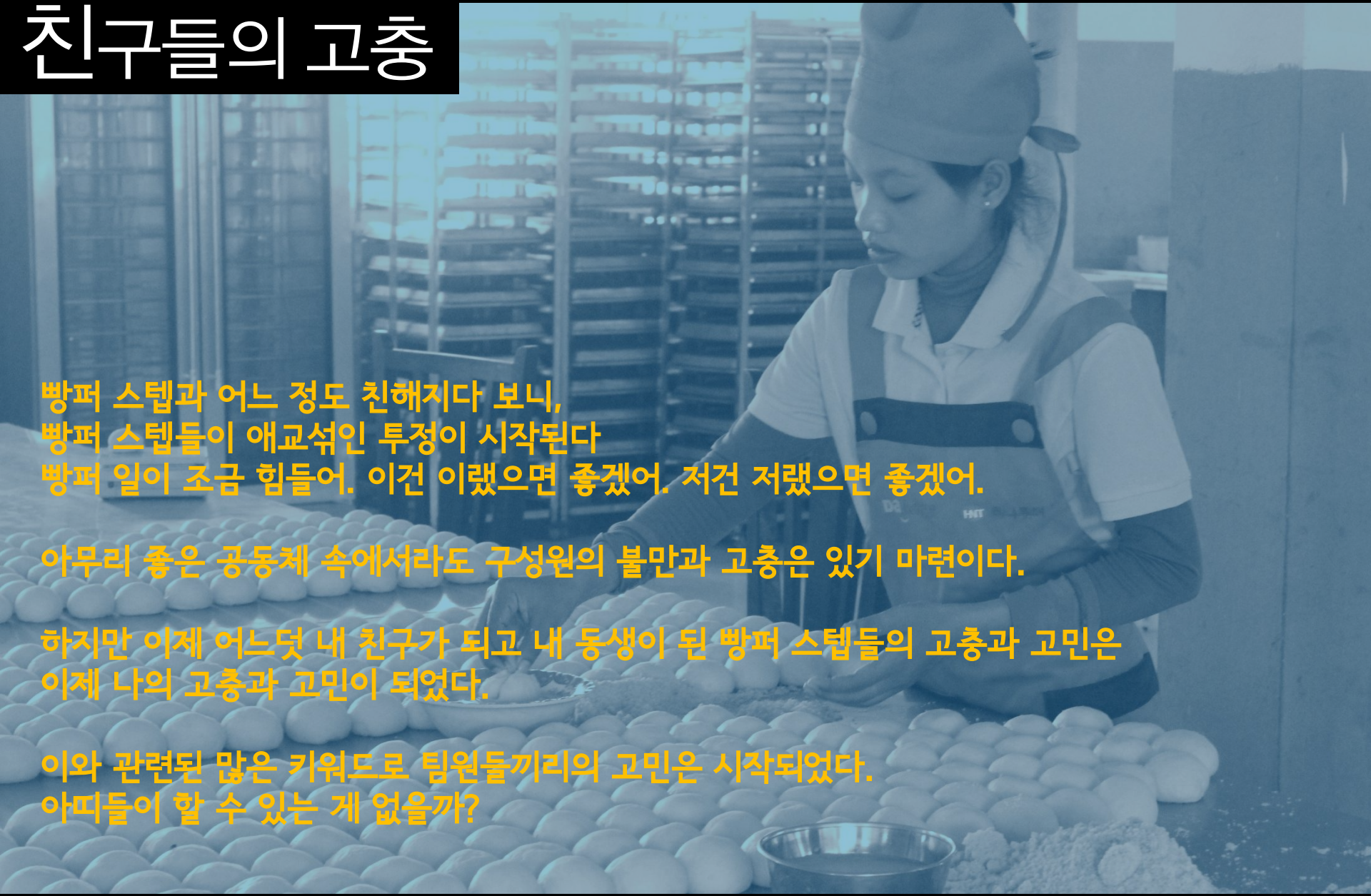
친구들의 고충

빵퍼 스텝과 어느 정도 친해지다 보니,
빵퍼 스텝들이 애교섞인 투정이 시작된다
빵퍼 일이 조금 힘들어. 이걸 이랬으면 좋겠어. 저걸 저랬으면 좋겠어.

아무리 좋은 공동체 속에서도 구성원의 불만과 고충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어느덧 내 친구가 되고 내 동생이 된 빵퍼 스텝들의 고충과 고민은
이제 나의 고충과 고민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많은 키워드로 팀원들끼리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아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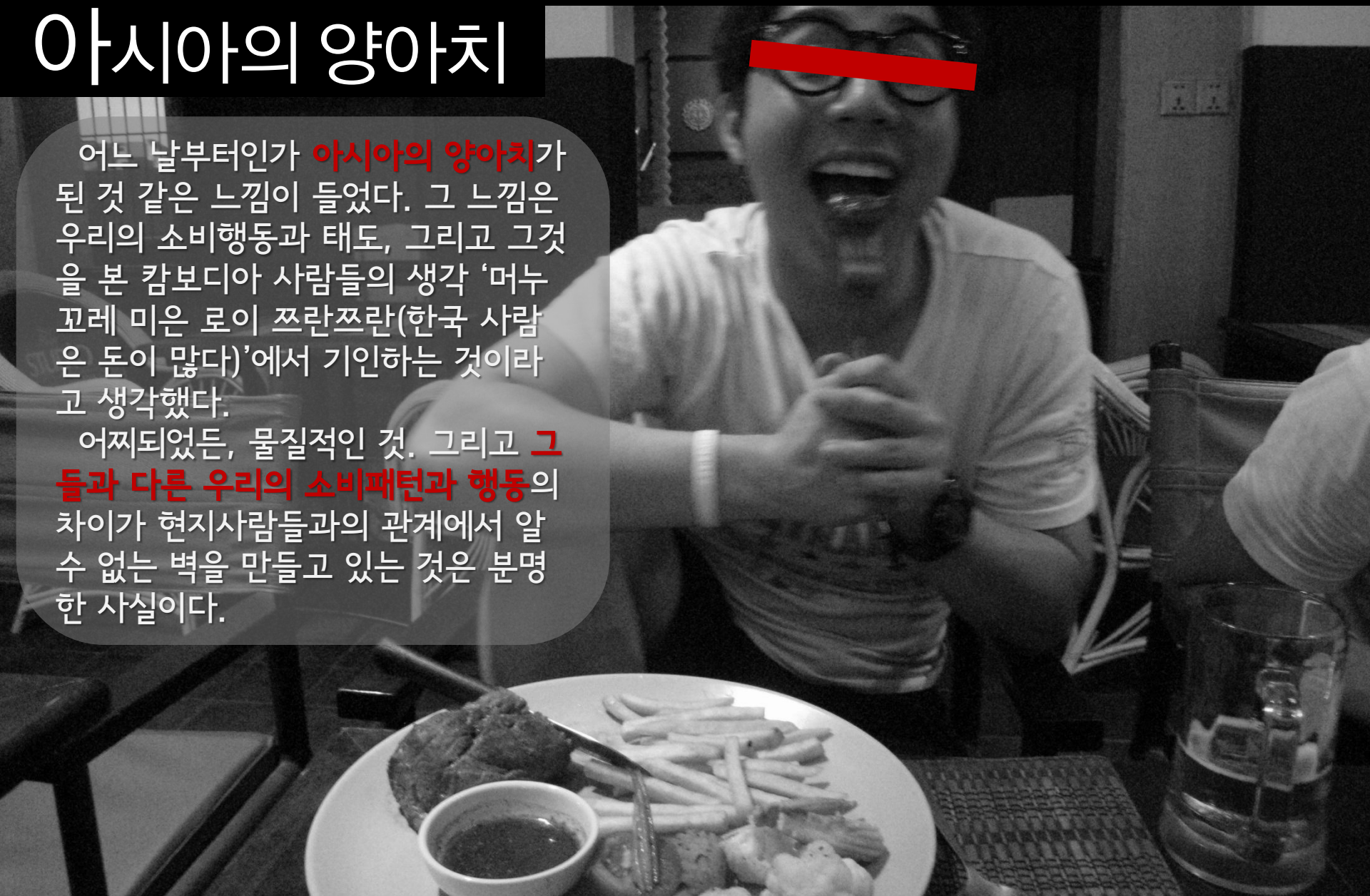


The source of Trouble

아시아의 양아치

어느 날부터인가 **아시아의 양아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우리의 소비행동과 태도, 그리고 그것을 본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각 '머누 꼬레 미은 로이 끄란끄란(한국 사람은 돈이 많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찌되었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들과 다른 우리의 소비패턴과 행동**의 차이가 현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알 수 없는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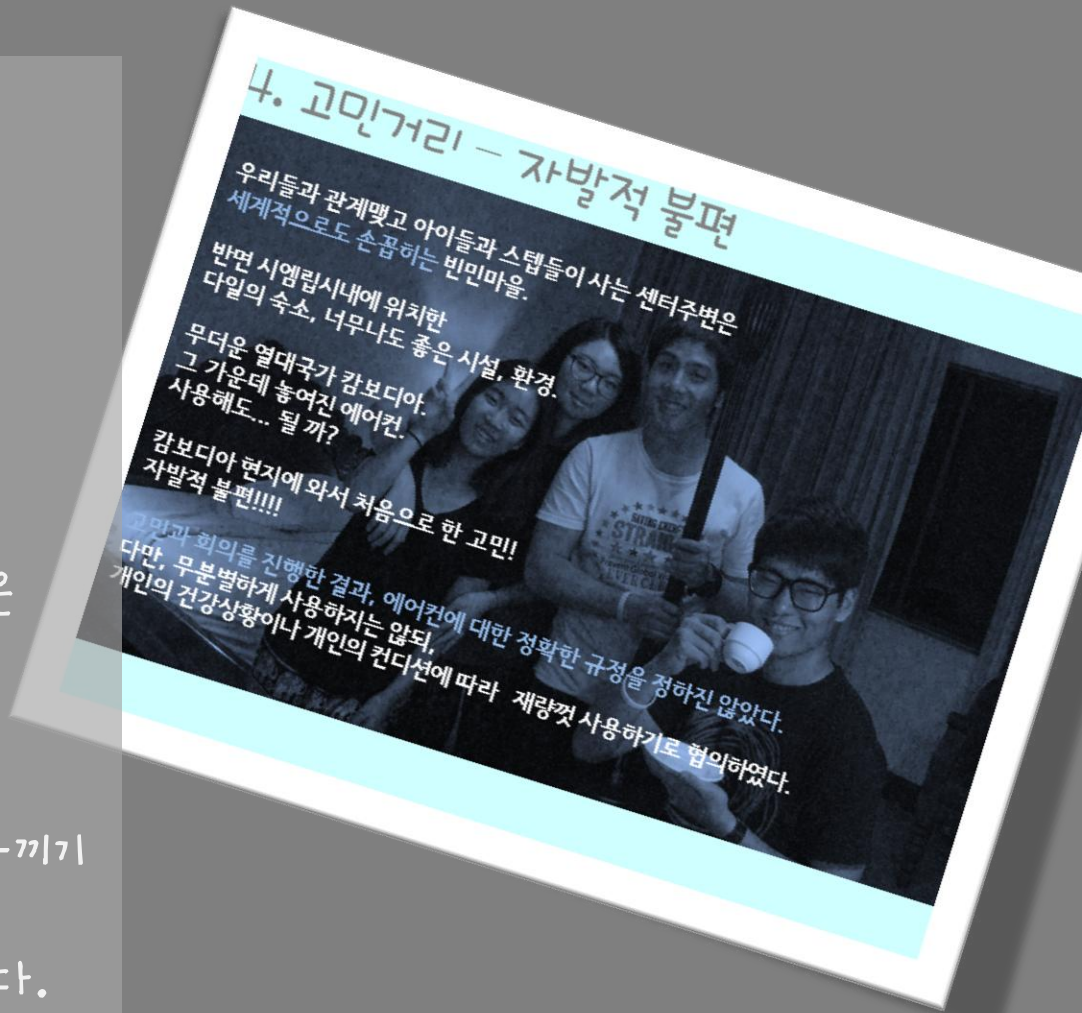
5월의 계획

인간의 조건

자발적 불편은 3월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더불어 우연찮게 알게 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현지인 친구
한 달 임금 \$45.
과연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도 한 달간 \$45로 살아보자!
5월 6일 00시부터 시작된 이 자발적 행동은
전기세, 수도세, 식비, 기름값 등을
철두철미하게 계산하여 진행되고 있다.

오늘도 몇몇 단원은 기름값, 약 500원을 아끼기
위해 시엠립 거리에 땀을 한껏 뿌리며 왕복
약 25km거리를 자전거로 죽어라 달리고 있다.



NGO 무빙스쿨



다일공동체는 다일공동체 만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캄보디아를 위한,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한 많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필요자금은 대부분 후원을 통한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문득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다.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NGO들은 무엇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또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까? 그 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행동**해보기로 했다.

라운아띠 국내교육 때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 무빙스쿨.

그 2탄, NGO 무빙스쿨 시엠립편.

5월 중 기획서를 제작하여, 원장님께 협조를 구하고

시엠립 내에 위치한 NGO 2~3곳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무빙스쿨을 시도할 계획이다.

***무빙스쿨(Moving School)이란?**

라운아띠 국내훈련 중 시행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팀원들이 스스로 정한 주제로 논의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기관들과 연락하고, 찾아가서 직접 발로 뛰고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봉사자 가이드라인 제시



지난달 봉사자 지침사항에 대해 고민했던 시엠립 팀.

곧, 그 고민을 구체화하여 단기봉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다일공동체에서 허락한다면, 단기봉사자들에게 보여줄 포스터/UCC제작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자원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봉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태도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생각과 그로 인한 여타 행동들
 - 돈을 주는 행동
 - 특정 아이들에게만 물품(사탕, 과자 등)을 나눠 주는 행동
 -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행동
2. 관광하듯 밥 먹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행동
3.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행동
4.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

포토 에세이

Photo Essay

김재민

4월 28일 내생일 때의 사진이다.

이 사진을 포토에세이 사진으로 고른 이유는,
별거없다. 그냥 내가 잘 나왔기 때문이다. ㅋㅋ

사실 사진선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진 속엔, 이곳에선 말 못할 나의 슬픈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함께 산다는 건 뭘까?

이게 뭘지는 잘 몰라도, 이십대 중반. 라온아띠에 선발되어 캄보디아 시엠립땅에 와서야,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공감어봤고, 이직도 여러방면으로 씌고있다. 질정질정.

난 지금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4명의 팀원들, 캄보디아 다일사람들,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산다는 것. 함께 생활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을 배운 지난 두달이었다. 힘들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다는 것도 잘 알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걸 알게해 준 지난 두달이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혼자하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즐
거움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해준 지난 두달이었지만, 그래도 지난 두달은 힘들었다. ㅋㅋ

하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지금. 이제서야 비로소, 많은 것들에 **행복하다. 진심으로.**

목진경



이 사진은 **꼴츠남 휴가** 첫 날에 찍은 사진이다. 저녁 9시에 출발하여 차에서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쁜 일출을 보게 되었다. 나는 **캄보디아의 풍경**이 참 좋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지평선과 들판의 소들 같은 풍경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유독 이 사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 달리는 차안에서 바라보는 일출이라 그런 것 같다. 다시 보기는 힘든 풍경인 것 같아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장은지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에 최일도 목사님이 오셔서 뚝네삽 호수 한가운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마침 캄보디아 새해(짚츠남) 전이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다.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출을 볼 수 있어서 무척이나 뜻 깊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해가 완전히 떠서 어두운 새벽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지도에도 나오는데 이 큰 호수는 많은 것들을 간직하고, 보여주고 있었다. 한 달하고 일주일쯤 프놈끄라움 마을에 와서 일한답시고 정작 바로 근처에 있는 뚝네삽 호수에 대해 모르고 있던 걸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밖에서 뚝네삽 호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 들었을 때와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은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호수의 풍경들을 보면서 우기 때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백인준

에세이의 순서

솔직히, 이번 달은 할 말이 많아서 휘갈겨 적었더니 분량이 많아졌다. 팀원과 논의 후에 내 에세이가 지루할 것으로 판단. 순서를 맨 뒤로 빼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 에세이가 이 보고서의 마지막이다. 읽기 싫으면 끄면 된다!

포토에세이

보통 포토에세이를 작성하면 사진을 정한 후 내용을 끼워 맞추기 십상이다. 내용을 쓰고 나서 사진을 고르려면 고민되니까! 미련하게도 내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진을 넣지? 아무래도 하나로는 안 되겠다.

팀원과의 관계

3월 보고서에 고민거리로 '팀원과의 관계'를 넣자고 했다가, 보고서 제출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팀원 간의 관계를 빼고 빨리 끝내기로 했었다.

대신 4월 보고서에 넣자고 했는데 아직 아무 말도 없는걸 보면 뭐... 팀원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거겠...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도 우리 팀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나 싶다. 내가 너무 태평한건가? 아니면 한 달의 간극이 컸나?

ps.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에세이의 '팀원과의 관계'를 맨 뒤에 넣을지 '에세이의 순서'뒤에 넣을지 고민 중이다. 이 내용은 노력해서 읽은 사람만 보여주고 싶다.

백인준

크메르어

크메르어를 배우면서 느끼고 있는데, 언어를 배우면서 내 생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된다. 필요한 말을 먼저 배우게 되니까.

감정표현

나는 화났어. 크놈 킵. I'm angry.

나는 행복해. 크놈 씨바이. I'm happy.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언어는 감정표현을 할 때 감정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넣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감정은 혼자 느끼는 것이고, 상대가 나를 때리든, 자살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자기 자신의 감정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 너무 끼워 맞추기인가? 제길.

감자튀김

네가 나에게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지?' 라고 물었을 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지만 결국 하지 못한 말을 이렇게 전하는구나. 너는 나에게 감자튀김 같은 존재야. 없으면 아쉽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이 내용은 사진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덧붙임.)

백인준

정신병자

솔직히, 이렇게 쓰면서도 걱정된다. 정신병자라고 오해할까봐.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10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이 글들을 보고 지원을 포기 하는 것... 그래도 '좋아요'같은걸 노리는 글보다 조금 더 솔직한 글을 쓰고 싶은 것이 사실.

조조와 유비

조조는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배신 할 수 없다.'고 했고 유비는 '세상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배신 할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서로를 비난 할 수 없었던 것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 일거다. 사상이 다르면 싸울 수는 있지만 비난할 명목은 없다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겠다.

행복

솔직히, 내 삶의 최고 가치는 행복인 것은 지금도 변함없다. 쪽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태어난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거라니깐!

쉬어가는 코너

양증맞게도 크메르어로 '먹다'는 '남'이다. 남? 남! 남.

백인준

9시 43분

내게 9시 43분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이 또 한 명 늘었다. 1등급이 한 명 늘었다.

행복의 깊이

우와, 부럽다. 난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부럽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넓이(1) * 부제 : 젠장, 생각이 짧았다.

아직도 내 삶의 최고 가치가 행복인 것은 변함없다. 그런데, 행복의 깊이만 생각했지 행복의 넓이를 간과한 것 같다. 젠장젠장젠장!

아이들이 여러 고민하지 않고 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걸 보니 부럽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기회를 얻지 못 하는건 왜 간과했지?

행복의 넓이(2) * 부제 : 악우의 대답

악우가 이렇게 대답했다. '기회의 획득은 또 하나의 기회의 박탈이다.' 이 뜻이 뭔가 했더니... 만약, 내가 '재화의 빈곤'에 대해 열심히 고민을 했고, 결과로, 재화가 가난한 아이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치자. 부유한 재산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고 여행을 갈지 안 갈지 고민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여행을 갈지 안 갈지 고민하지 '않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뜻이란다.

백인준

행복의 넓이(3) * 부제 : 미덕

트루먼처럼 파놉티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도 행복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니, 악우는 그건 네 생각이라 대답했다.

그 대답은 미덕을 간과했다. 극단적인 예로, 외골에 몰려, 사지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버린 아이가 있다고 치자. 이 아이에게도 기회는 평등하다고 주장할 샘인가? 이것마저 자기 중심적 생각인가? '아이가 성장해서 삶을 살 기회를 잃은 대신, 성장한 후 무언가를 고민하지 않을 기회를 얻었다'고 하기엔 미덕을 너무 등한시켰다.

행복의 넓이(4) * 부제 : 선과 악

한때는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했고, 한때는 선의 부재가 악이라고 생각했으며, 한때는 선과 악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즉 70억 가지의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보통 때리고, 물고 등등)'이 '악'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70억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 행동을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악'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닐까? 통증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아는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이 선일 것이다. 적어도 나는 마조히스트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백인준

칼 융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하나는 프로이트와 '사제지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덧붙여, 프로이트에게 칼 융이 없었다면 철학가 프로이트가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 같다. 솔직과 거짓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복의 넓이(5)

그러니깐, 뜬금없이 다시 행복에 대해 말하면, 행복도 70억 가지가 있다. 무수히 많은 행복의 넓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행복의 깊이를 개척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심표

나는 심표를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솔직히, 어디 넣어야 맞춘법이 맞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니깐, 그냥 그러려니 했으면 좋겠다. 뜻만 통하면 되지 뭐.

솔직, 너도 마찬가지로지?

너는 내 글을 읽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글마저 훑쳐보고 있겠지? ㅍㅍ 젠장 ㅍㅍ.

백인준

눈앞의 절전형 멀티탭도 끄지 않으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야?
빨리 끄고 와야지!

잔인한 프로그램 라온아띠 * 부제 : 나라 잃은 백성처럼 울었다. (13/4/13 자정)
'크눔 엇 썩 떼우 꼬레'라고 말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올?'하며 슬라이 닉, 찌마, 띠
를 옆에 얹혀두고 이해하는지 재차 확인하며 '엇 올'이라고 대답이 올 때 비로소 '미안해'라고
되뇌어 말했다.

4개월 남았다. '크눔 엇 썩 떼우 꼬레.', '나는 한국에 가기 싫다.' 아이들을 오래 보고싶다.
라온아띠는 정말 잔인한 프로그램이다. 친절하게 귀국 항공편까지 예매를 해주었다니...

4월의 분위기

이 에세이는 4월에 느꼈던 전체적인 내 기분을 대표하는 글이다. 그만큼 즐거운 느낌이 묻어
나는군! 암! 그러코말코!

자기고백

아마도 충격적인 자기고백일거다. 내가 '나는 어떡어떡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고백은 '너
도 나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충고를 겸하고 있다.
반대로 타인이 하는 자기고백으로 나에게 충고하려 하지만 제대로 되진 않는다. 으유! 쪽!팔!려!

백인준

4월 보고서?

사실 이 보고서는 4월 내용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5월 내용도 조금 담고 있다. 물론 3월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왠지 거짓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끄적여본다.

5월 보고서

할말이 한참 남았지만, 5월에 넣어야겠다. 왜냐면, 보고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

다른 팀들에게 보내는 편지

피피티 저장하기 전에 [파일->옵션->저장->파일의 글꼴포함]을 해야 다운받은 글씨체도 저장된답니다. 글씨체 깨진걸 보니 안타까워서 그만..

할 말 끝!

대단하십니다. 지루한 에세이를 끝까지 읽으셨네요.